

news

협회 조현정 회장, 북에 IT 도서 3만권 보내



지난 4월 말, 조현정 회장은 평양을 방문하여 남측에서 발행한 IT도서 3만권을 전달하고 돌아왔다. 이번 IT서적 전달은 조현정 회장이 지난 2001년 방북 시 약속한 IT서적 보내기를 5년 만에 지킨 것. 조현정 회장은 정보과학회(회장 김동윤)와 정보처리학회(회장 변재일) 소속 교수들과 이한출판사의 도움으로 IT서적 3만권을 수집, 북한의 남포항을 통해 전달했다.

조현정 회장은 "IT도서 3만권을 전달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일로, 남측에서 제작·발행된 IT서적으로 북한 학생들과 IT엔지니어들이 학습하게 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IT서적 전달을 시작으로 연내에 평양에서 벤처기업협회와 정보과학회, 정보처리학회가 주관하는 IT협력사업회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 더불어 내년에도 IT서적 3만권을 전달키로 했다.

공식적인 IT서적 전달식과 향후 IT협력사업을 타진하기 위해 김진형 정보과학회 회장, 이상범 정보처리학회 회장, 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회장, 최휘영 NHN 사장 등이 함께 평양을 방문했다. 도서 전달식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번에 전달된 책자는 북한 각지의 대학과 인민대학습당에 비치될 예정이다.

협회, 4개 주요대학과 '대학생 창업정신 함양 프로그램' 업무 협약 체결



협회는 지난 5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과 중소기업단체장, 공과대학장과 함께 '대학생 창업정신 함양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태희 부회장(대표 케이블박스)이 협회를 대표해서 참석했으며, 김용구(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영(회장 이노비즈협회), 김도연(학장 서울대공대), 김수원(학장 고려대공대), 김문경(학장 연세대공대), 임승순(학장 한양대공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청년층이 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 비전을 잘 알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시각에 있다"며 "이와 같은 중소기업 인력시장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바로 알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협약체결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번 협정을 통해 협회 조현정 회장과 인케코퍼레이션 전하진 대표 등 유명

중소벤처 기업인들이 오는 2학기부터 서울대 이외 주요 대학에 벤처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주성엔지니어링, 다산네트워크 등 중소기업에서 3주간 체험연수를 받으면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협회, '중소기업시대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참석



지난 5월 15일, 중소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중소기업의 위기 타개와 인식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시대포럼(준비위원장 김영호 유한대 학장)' 출범식이 열렸다. 벤처기업협회 조현정 회장은 중소기업시대포럼의 창립발기인으로 자리를 함께하고, 벤처 확장을 위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했다. 포럼 관계자는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손을 잡았다는 데 이번 포럼 결성의 의의가 있다"며 "포럼은 앞으로 중소기업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포럼에는 조현정(회장 벤처기업협회) 외에 김용구(중앙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한준수(대표 한전) 등 재계 인사를 비롯해 박상증(공동대표 참여연대), 김영호(학장 유한대), 한정화(교수 한양대), 박영숙(이사장 여성재단), 이세중(회장 변협), 손봉호(총장 동덕여대), 이종훈(고문 경실련) 등 학자와 시민단체 인사, 사회 원로 등 40여 명이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태국 OSMEP 방문단, 협회 방문



지난 5월 4일, 태국 OSMEP(Office of SME's Promotion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청과 유사한 기관) 방문단이 협회를 찾았다. 태국 OSMEP 방문단은 협회 전대열 상근부회장과 함께 국내 벤처산업 현황과 태국의 벤처 발전인에 대해 논의했다. 태국 OSMEP 방문단은 국내의 벤처부흥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벤처산업을 지원하는 예산 형성과 투자 방식, 벤처캐피탈의 생성과 운영 등에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태국 OSMEP 방문단의 Jhitrporn Techacharn 의장은 "대한민국은 다른 산업의 발전사도 우수하지만, 이제 막 벤처산업을 육성하려는 태국 입장에서는 가장 닮고 싶은 벤처 국가"라며, 대한민국 벤처산업과 정책을 벤처마킹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협회, 벤처기업 해외진출 인프라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회는 지난 4월 19일, 리저스 그룹과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가졌다. 리저스 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이 리저스가 운영하는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협회가 추천하는 회원사는 'Network Access Card' 구입 시 50% 할인, 국내에서 리저스 가상 오피스 구입 시 25% 할인, 해외에서 가상 오피스를 4개 이상 구입 시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 회원사는 리저스의 전 세계 비즈니스 센터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어 세계 시장 진출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리저스 그룹은 세계적인 비즈니스센터 전문회사로 국내에는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에 총 308개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가 있으며 회의시설, 리셉션 공간, 비즈니스 라운지, 집기가 완비된 주방 등 모든 설비를 갖추고 있다.